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유교

도 민 재
(영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유교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교육사상은 삼국시대 이래로 유교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유교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확립에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정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덕성교육이나 사회성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간의 인격적 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가정 교육의 내용을 고찰함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정교육의 역할 회복과 함께 참된 인간 상의 형성이라는 교육의 목표 설정에 이론적·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유교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교육은 삼국시대 이래로 유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유교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확립에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정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덕성교육이나 사회성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 인간의 인격적 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을 통하여 형성 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고찰함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정교육의 역할 회복과 함께, 참된 인간상의 형성이라는 교육의 목표 설정에 이론적·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 가정의 특성과 한국 전통교육 내용의 유교적 특징을 살펴본 후, 유교사상이 우리 전통사회에 일반화되었던 조선조 중기 이후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과 그 유교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전통 가정교육에서는 교육의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여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엄부자모(嚴父慈母)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예절위주의 실천적인 교육을 통한 덕성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덕성교육의 지향을 위한 반복적인 실천학습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회성을 기르게 할 수가 있었다.

핵심주제어 : 소학(小學), 사소절(士小節), 태교(胎敎), 엄부자모(嚴父慈母), 예절(禮節), 덕성(德性)

Korean Traditional Home Education and Confucianism

Doh, Min Jae
(Yongsan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the nature of traditional home education in Korea as seen from the Confucian aspect.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ean traditional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with Confucian ideas at its center. The goal of such education was to establish an ideal man of virtue based on Confucian humanism.

In the modern society, the kinds of education that ought to be provided at home such as on morality and sociality are not being properly carried out as the function of family wither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move towards nuclear family. Of all things, however, the role of home education has to be emphasized since the accomplishment of a man's personality is formed through home education prior to school education. From this standpoint, studying the nature of traditional home education can provid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goal of forming the image of true man, along with help restoring the role of home education much needed in the modern societ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in traditional society and Confucian features in traditional education. Then it studies the nature and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me education with main focus on the period after mid-Choson dynasty when the Confucianism became widespread. In the traditional home education, great importance placed on emotional education led to the emphasis on the role of parents, with education commencing at the prenatal stage. In addition, parents played mutually supplemental roles such as the combination of stern father and affectionate mother, aimed at forming harmonious personality of a child. As for the methodology, practice-based courtesy and moral education was pursued. Repeated learning by practice intended for such moral education enabled

children to cultivate their sociality with proper perception of their role at home and in society.

Key words: Sohak(小學), Sasojeol(士小節), Confucian features in traditional education, stern father and affectionate mother, practice-based courtesy and moral education

I. 시작하는 말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인간 형성의 작업이 된다. 이 교육을 대체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이 교육의 범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만으로 앞서 말한 참된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의 산업화로 인하여 가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아울러 교육의 목표 역시 학벌이나 지식을 우선시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성의 붕괴, 인간소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바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교육목표 및 내용 등이 서로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학교에 취학하기 이전부터 실시되고, 아울러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한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교육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때,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비해 전통사회에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교육목표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에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모든 교

육을 학교에만 일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차 경쟁 위주의 사회로 변모해가면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 경쟁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참된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인간의 인격적 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고찰함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정교육의 역할 회복과, 나아가 교육의 목표 설정에 이론적·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통사회 가정의 특성과 한국 전통 교육에서의 유교적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과 그 유교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유교사상이 우리 전통사회에 일반화되었던 조선조 중기 이후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1775년(영조 15) 아정 이덕무(雅亭 李德懋: 1741~1793)가 저술한 『사소절(士小節)』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한국 전통사회 가정의 특성

가정(家庭)이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집단이며,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생산과 교육, 의례(儀禮), 종교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가정은 일반적으로 ‘가(家)’라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집단이며, 교육집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여러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곧 부부(夫婦)이다. 정현(鄭玄)은 『주례(周禮)』의 注에서 “지아비가 있고 지어미가 있는 뒤에야 가(家)가 형성된다”¹⁾고 하였다. 즉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사회에서는 혼례(婚禮)가 매우 중요한 가정의례로 정착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매우 뚜렷하였다. 특히 가정교육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1) 『周禮注疏』, 권11, 「地官」, 小司徒의 鄭玄注: “有夫有婦然後爲家”.

어머니로서의 권위도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가(家)에는 일가(一家)를 대표하는 가장(家長)이 있고, 가장은 가족구성원과 함께 가문(家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가문의 유지 발전은 곧 가족 구성원 개인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한 집안의 가통(家統)이 확립되는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유교사회에서의 가(家)는 모든 사회 조직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으며, 집안에서 가통의 확립 여부는 사회 질서의 확립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통의식은 조상숭배의식(祖上崇拜意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즉 가정이란 부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조상에서 이어져 내려왔고, 다시 오래도록 자손에 의해 계승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집안의 사당(祠堂: 家廟)은 바로 이러한 가통의 상징이 되었다. 이 조상숭배의식은 가족 내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하였고, 가족 내에서 예의범절을 지키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가족사이의 화목(和睦)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자녀의 가정교육이 가족 전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따라서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공동체의식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가도(家道)·가풍(家風)을 확고히 세우게 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 사이의 애정과 효제(孝悌)의 윤리에 입각한 가정교육·인격도야(人格陶冶)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통(家統)의 확립을 위하여 조선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대부를 대상으로 가묘제(家廟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묘의 설립을 통한 가통의 확립이 곧 국가의 이념적 구심점인 종통(宗統: 王統)의 확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교이념을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에서 국가의 최고 상징은 종묘(宗廟)였다. 종묘는 왕실의 종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종법체제(宗法體制)에서 사대부(士大夫)들의 가묘에 대해 이념적인 대종(大宗)이 된다.²⁾ 곧 집안에서의 가통과 국가적 차원의 종통, 학문적 성격의 도통(道統)의 확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던 것이다.³⁾ 이러한 점은 흔히 말하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관념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교윤리의 중심이 가족윤리에서 출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대표적인

2) 崔鳳永, 「朝鮮時代 선비들의 類型과 行爲類型」, 《정신문화연구》 21,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년 가을호), 176쪽.

3) 崔鳳永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이러한 統意識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家廟를 통한 家統意識, 宗廟를 통한 宗統意識, 文廟를 통한 道統意識이 선비정신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崔鳳永, 『朝鮮時代 儒敎文化』, (서울:사계절, 1997).)

유교윤리인 ‘오륜(五倫)’에서 부자유친(父子有親)이 가장 먼저 나오는 점은 유교윤리의 중심이 가족윤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관계에서의 ‘효(孝)’는 유교윤리의 기초가 된다.⁴⁾ 이 효는 나아가 국가에서의 충(忠)으로 발전되는 기반이 된다. ‘효자(孝子) 집안에서 충신(忠臣)난다’는 말은 바로 효가 충으로 확대되는 유교의 윤리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가문(家門)과 가통(家統)의 유지와 번영이 개인보다 우선하는 제일의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중심의 사회적 특성은 전통사회의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의 교육은 가족윤리가 사회윤리로, 사회윤리가 국가윤리로 자연스럽게 확대되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III. 한국 교육의 유교적 전통

우리 나라는 유교의 전래와 함께 유교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입각한 인재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정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⁵⁾ 고구려의 태학(太學)과 경당(局堂), 신라의 국학(國學)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기관이다. 문헌에 의하면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유교적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있는 신라시대 국학의 교과 과정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국학(國學)은 예부(禮部)에 속하며 신문왕(神文王) 2년에 설치되었다. … 교수하는 법은 『주역(周易)』·『상서(尙書)』·『모시(毛詩)』·『예기(禮記)』·『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선(文選)』으로 나누어 학업을 삼고, 박사(博士)와 조교(助教) 1인이 혹은 『예기』·『주역』·『논어』·『효경(孝經)』을, 혹은 『춘추좌씨전』·『모시』·『논어』·『효경』을, 혹은 『상

4) ‘父子有親’의 구체적 양상은 ‘父慈子孝’로 제시된다. 이는 일방에 대한 강요의 윤리가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상호관계의 윤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욱 절실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父子有親’의 실제적 적용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慈愛보다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孝의 도리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5) 高句麗의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세워子弟를 교육하였다’는 『三國史記』의 기록과, 百濟의 ‘근초고왕 때 아적기와 博士 王仁이 일본에 『千字文』과 『論語』 등을 전하였다’는 『日本書紀』의 기록, 新羅의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을 설치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 등은 이 당시에 이미 유교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논어』·『효경』·『문선』을 가르쳤다. 독서하는 학생을 삼품(三品)으로 나누어 출신(出身)하도록 하였는데, 『춘추좌씨전』과 『예기』, 『문선』을 읽고서 그 뜻에 능통하고, 이와 겸하여 『논어』, 『효경』에 밝은 사람을 상품(上品)으로 하였고, 『곡례(曲禮)』,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을 중품(中品)으로 하였으며, 『곡례』와 『효경』을 읽은 사람을 하품(下品)으로 하였다. 만약 오경(五經), 삼사(三史),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뛰어넘어 등용하였다.⁶⁾

이에 의하면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이 국학의 기본 교과였으며, 국학에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과거제(科擧制)의 시원(始原)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서도 『논어』와 『효경』이 필수적인 기본교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유교의 교육이념을 받아들여 이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어』와 『효경』이 필수교재였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적 전통이 인(仁)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과 효(孝)를 통한 가족윤리의 확립을 통해 참된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예기(禮記)』 중에서 「곡례(曲禮)」편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곡례」란 ‘자세한 예의(禮儀)’, 또는 ‘예(禮)의 세칙(細則)’이라는 의미이다. 「곡례」에는 예의 정신이나 의의를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예의, 즉 세속(世俗)의 예절(禮節)이 기술되어 있다. 이 「곡례」편이 『예기』의 첫 부분에 실려 있는 것은 세속적인 예의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곡례」를 통해 세속적인 예를 강조함으로써 풍속(風俗)을 순화시키고 인륜(人倫)을 확립하려는 유교의 실천적 교육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논어』와 『효경』 등을 위주로 현실적인 도덕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고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광종(光宗) 11년(992)에 세워진 국자감(國子監)에서는 신라의 국학(國學)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어』와 『효경』을 필수로 하였으며, 이 외에 『주역』, 『상서』, 『모시』, 『주례』, 『예기』, 『춘추좌씨전』,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등의 유가 경전을 습득하게 하였다고 한다.⁷⁾

6)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 教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教授之. 諸生讀書, 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7)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學校, “凡經, 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穀梁傳各爲一經, 孝經論語必令兼通, 諸學生課業, 孝經論語共限一年, 尙書公羊穀梁各限二年半, 周易毛詩周禮儀禮各二年, 禮記左傳各三年, 皆先讀孝經論語, 次讀諸經, 并算習時務策, 有暇兼須習書日一紙, 并讀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은 『논어』와 『효경』을 위주로 한 유교의 실천적 측면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어』와 『효경』의 정치이론 및 충효(忠孝)의 정신은 우리의 정치와 교육제도 및 예속(禮俗)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즉 『논어』의 ‘수기안인(修己安人)’ 사상과 『효경』의 ‘효(孝)와 충(忠)의 겸전(兼全)’은 한국유교의 실천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성리학(性理學)의 전래 이후에도 이러한 실천적 성격은 지속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의 중시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소학』은 학문의 근본을 배양하는 수신서(修身書)로서, 조선조 유교적 예속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학’이란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대인지학(大人之學)’⁸⁾인 대학(大學)의 가르침에 선행하는 것이다. 『소학』은 주희(朱熹)의 지시로 그 문인인 유자징(劉子澄)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 주희(朱熹)는 「소학서제(小學書題)」에서 『소학』 편찬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소학(小學)에서는 사람들에게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는 모두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릴 때에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은, 습관(習慣)은 지혜와 함께 자라나고 교화(教化)는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善)과 악(惡)이 서로 막아서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근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⁹⁾

이와 같이 『소학』은 유교 윤리를 통해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추구하려는 의미에서 편찬된 책이다. 그 구조는 내편(內篇)의 「입교(立教)」·「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의 네 부분과 외편(外篇)의 「가언(嘉言)」·「선행(善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입교」에서는 학문을 하는 데에 필요한 가르침과 배움의 원칙을, 「명륜」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리를, 「경신」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고」에서는 옛 성현들의 올바른 언행을 열거하여 윤리 실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외편의 「가언」과 「선행」은 고금(古今)의 성현들의 가르침과 선행을 따로 모아놓아 수양의 참고로 삼도록 한 것이다.

8) 『大學』, 經1章, 朱熹 注, “大學者, 大人之學也”.

9) 『小學集注增解』, 「小學書題」, “古者小學, 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稚之時, 欲其習與智長, 化與心成, 而無扞格不勝之患也”.

이러한 내용 구조에서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은 『소학』의 3대 강령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명륜’이 중심이 된다.¹⁰⁾ ‘명륜’에서는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전통적인 ‘오륜(五倫)’의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소학』은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도리와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한 개인의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규범서(行爲規範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유교국가를 표방했던 조선조에서는 이처럼 성리학의 이념을 현실의 인륜관계에 실천할 수 있는 『소학』을 내면적 수양과 교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조선초기 유교 이론의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던 양촌 권근(陽村 權近)은 1407년(태종 7)에 올린 상서(上書)에서 『소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소학』의 글은 인륜(人倫)·세도(世道)에 매우 절실한 것인데, 지금의 학자는 모두 익히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교수관(敎授官)들은 학생들이 먼저 이 글을 배운 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고,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성균관(成均館) 정록소(正錄所)에서 먼저 이 글의 통부(通否)를 상고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함으로서, 길이 변치 않는 법규가 되도록 하십시오.¹¹⁾

이처럼 『소학』은 유교의 예치질서(禮治秩序)를 확립하는 기본이 되는 책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1426년(세종 8)에는 성균관 정록소에 대관(臺官)을 나누어 배치하고, 『소학』과 『가례(家禮)』를 시험 과목으로 정하게 하였다.¹²⁾ 이러한 『소학』에 대한 중시는 사림파(士林派)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사림파의 학풍이 보편화되는 16세기 이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림파인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는 중종(中宗) 12년(1517)에 조강(朝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어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동몽(童蒙)의 교양이 지극히 빠르고 지수(持守)하는 것이 굳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모름지기 이 글을 궁벽한

10) 『小學』 內篇에서 ‘立敎’는 13장, ‘明倫’은 108장, ‘敬身’은 4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明倫’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陽村集』, 권31, 上書類, 「論文科書」, “小學之書, 節於人倫世道爲甚大, 今之學者皆莫之習, 甚不可也. 自今京外敎授官, 須令生徒先讀此書, 然後方許他經, 其赴生員之試. 欲入大學者, 令成均正錄所考此書通否, 乃許赴試. 永爲恒式”.

12) 『世宗實錄』, 권31, 8년 1월 壬戌, “分臺于成均正錄所, 考講小學家禮”.

촌간에까지 보급하고서야, 사람들이 모두 효도(孝道)로 아버지를 섬기고 충성(忠誠)으로 임금을 섬길 줄 알아서 선후(先後)와 차례(次例)가 분명히 갖추어질 것입니다. ... 이제 임금께서 단연코 그것을 읽으시면 사림(士林)이 듣고서 고무(鼓舞) 진작(振作)되어 다스림의 올바른 방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¹³⁾

즉 『소학』의 윤리는 임금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두가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학』의 윤리는 사림들을 주축으로 일반인에게도 보급되었고, 이후 『소학』은 전통교육에서 기본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안국(金安國)은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으면서 『소학』의 보급에 진력하고 『소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향약(鄕約)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이 외에 김안국의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1517년 간행)와 김정국(金正國)의 『경민편(警民篇)』(1519년 간행) 등이 이러한 소학적 윤리 보급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¹⁴⁾ 이는 유교 윤리의 보급이 사대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글로 번역된 교화서(敎化書)가 나와 일반인에 대한 유교 윤리의 보급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¹⁵⁾ 이러한 소학적 윤리실천은 조선조 교육의 기초가 되었으며, 유교이념의 확립과 함께 점차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소학』의 내용은 전통사회에서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 가정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일과 행실은 다 같은 것이니, 옛 글을 잘 읽으면 그 하나 하나가 오늘날 나의 일과 행실에 부합된다. 다른 글은 물론하고 『소학』 한 책만이라도 잘 사용하면, 대소경중(大小輕重)이 어느 일이나 있으므로 척척 취해 써도 남음이 있다.¹⁶⁾

자제에게 『소학』을 가르치지 않고서 그 실효(實效)를 책하며 그들의 경솔하고 험악함을 걱정만 하는 것은, 바로 맹자(孟子)가 말한 ‘망민(罔民)’이라는 것이다.¹⁷⁾

13) 『中宗實錄』, 권29, 12년 9월 丙戌, “御書講, 趙光祖臨文曰, 人生八世, 入小學則蒙養至正, 持守堅定矣. ... 須以此書, 遍及窮村僻巷之中, 然後人皆知事父以孝, 事君以忠, 而先後此序明備矣. ... 今自上斷然讀之, 士林聞之, 鼓舞振作, 致理之方, 庶得其正矣”.

14) 金恒洙, 「朝鮮 前期의 性理學」, 『韓國史』, (서울:한길사, 1990).

15) 『번역소학』(1518년 간)과 『三綱行實圖』의 연해본, 『二倫行實圖』, 『警民篇』은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6) 『士小節』, 권3, 「士典」3, 敎習, “古與今, 事行皆同, 善讀古書, 則一一符合於吾今日之事行, 他書姑無論, 至於小學一書, 善爲運用, 則大小輕重, 無事不有, 信手取用, 需然有餘”.

17) 『士小節』 권5, 「士典」5, 御下, “不教子弟以小學, 責其實效, 只憂輕率險詐, 是孟子所謂罔民”.

이에서 『소학』이 당시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과내용이었으며,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바로 유교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상적인 인간상[君子]의 정립에 있었다고 하겠다.

IV.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과 유교적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모두 유교이념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다. 이제 가정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교육의 내용과 유교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집안마다의 고유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조(先祖)로부터 후손에게 체험적으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된 자료는 많지가 않다. 1775년 이덕무(李德懋)가 저술한 『사소절(士小節)』은 당시의 선비와 부녀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수신(修身)에 관한 규범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전통적 가정교육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로 『사소절』을 중심으로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태교(胎敎)이다. 태교란 임신 중 임산부(妊産婦)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심신(心身)이 건강한 아기의 수태와 출생을 위하여 부모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이의 출생 때까지 수행하는 필요한 모든 교육적 노력이다.¹⁸⁾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다음과 같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임산부가 행동과 음식을 삼가지 않으면 자식이 일찍 죽거나 병들게 된다.¹⁹⁾

이러한 태교에 대한 사고는 특히 동양에서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태교에 관한 기록은 『열녀전(烈女傳)』, 『대대례기(大戴禮記)』, 『안씨가훈(顔氏家訓)』,

18) 柳岸津,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敎育』,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52쪽.

19) 『士小節』, 권7, 「婦儀」2, 敎育, “孕婦不慎起居飲食, 使其子夭且病也”.

『소학(小學)』 등의 책에서 발견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규합총서(閨閣叢書)』, 『태교신기(胎教新記)』 등 태교에 관한 본격적인 저술이 있다. 이 외에 이이(李珥)의 『성학집요(聖學輯要)』와 송시열(宋時烈)의 『계녀서(戒女書)』 및 각종 여성 교양도서에서 태교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태교를 매우 중요한 교육의 기초단계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전통태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²⁰⁾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통 태교의 교육적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전통 태교는 임신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임신 이전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함에서 태교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전통 태교는 어머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는 임신과 자식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태교에 대해서, 임신 중의 행동이나 약물, 음식 등에 대한 금기사항들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서 신체적인 측면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서적 안정을 더욱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태교를 통해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태교는 전통사회에서 가정교육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본격적인 가정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로 집안에서 부모와 친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특히 가정교육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의 교육적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미리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이다. 고식적인 은애(恩愛)만을 베풀면 무궁한 환해(患害)를 끼치게 된다.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금수(禽獸)가 될 것인데 어찌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랴.²¹⁾

항상 보전대, 세속(世俗)의 자제 중에는 부모를 속이지 않는 자가 극히 드물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가 어린 아이 때에 부모가 사랑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 만일 아비가 있으면서도 능히 그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20) 이에 대해서는 柳岸津,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의 제2부 중 「1.胎教段階」(121~199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1) 『士小節』, 권7, 「婦儀」2, 教育, “不教男子亡吾家, 不教女子亡人家,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縱姑息之恩愛, 貽無窮之患害, 爲吾子女者, 不遵吾教, 必作禽獸, 可不惕念”.

다면 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22)

이는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어린 아이 때에 사랑만을 베푸는 것을 경계하고 사랑과 함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맹목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는 풍토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자녀의 인성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가정교육에서의 부모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무 엄하면 사나운 자식은 떠나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교활한 자식은 방자하게 되니, 아버이 된 도리는 엄함과 사랑의 중간을 취해야 한다. 23)

어린이를 가르칠 때 엄하게 단속해서는 안 된다. 엄하게 단속하면 기백이 약한 아이는 겁을 먹고 기질이 강한 아이는 울분(鬱憤)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 너그럽게 놓아 두어도 안 된다. 너그럽게 놓아두면 뜻이 졸렬(拙劣)한 아이는 게을러지고, 기질이 강한 아이는 방종해지며 능멸하는 마음이 생긴다. 모름지기 말을 어거하고 매를 부리는 것처럼 하여, 채찍이 항상 손에 있어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24)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너무 엄해서도 안되고, 너무 사랑해서도 안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에서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고 하여, 부모가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정교육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는 성격이 한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원만한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가정교육에서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덕무는 특히 유아기 가정교육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후세에는 비록 부모(傅姆:보모)의 교육이 없기는 하나, 여자에게 있어서 명령에 잘 따르는 일과 청소하는 일과 길쌈하는 일과 음식 만드는 일들은 오로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는 시서(詩書)와 도사(圖史)를 가지고 설명·경계하는데 불과할 뿐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갓 태어날 때부터 7~8세 될 때까지의 출입하고 행보(行步)하며,

22) 『士小節』, 권8, 「童規」3, 敎習, “嘗看世俗子弟, 不欺其父母者幾希, 乃反究之, 則皆由於童時, 其父母溺愛不敎, 以至見欺. …… 若有父而不能訓子女, 與死等耳, 豈不可哀也哉”.

23) 『士小節』, 권5, 「士典」4, 御下, “太嚴則悍子離, 太愛則黠子肆, 爲人親之道, 嚴與愛之間乎”.

24) 『士小節』, 권3, 「士典」5, 御下, “敎小兒不可嚴束, 嚴俗則懦弱者驚恟, 氣盛者狂鬱且生嫉怨之心. 不可寬縱, 寬縱則志拙者解散, 質强者橫放且生凌侮之心. 須如御馬使鷹, 鞭條常在手而操縱適其宜可也”.

언소(言笑)하고 기거(起居)하는 일과 의복과 음식, 그리고 조심하고 화목하는 일과 덕성(德性)을 배양하는 일들도 역시 어머니의 훈계에 의지하게 되니, 그렇다면 어머니의 직책이 또한 중대하지 않은가?²⁵⁾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에서는 아들과 딸의 교육을 대체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담하여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딸인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의 의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들의 경우에도 7~8세 이전의 유아기에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덕성(德性)이나 행동의 습관(習慣)이 형성된다는 것에 주의하여,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은 품성을 기르기 위한 예절(禮節) 위주의 실천적인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지식(知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덕성(德性)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절교육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필요한 예절과 성품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통 가정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인격의 형성과 함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인간을 기르는 것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에 이덕무는 가정교육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이를 교육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가짐을 공명하게 하고 학업을 정대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가 장성하면 사우(師友)를 추종하되 반드시 단아(端雅)한 사람을 택하고 옳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며, 경서(經書)의 교훈을 어기지 않게 해야 비로소 잡된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할 것이다. 비록 빈천하여 문지기, 고용살이, 농사, 의원, 장사, 공장(工場) 등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행동을 삼가는 선비정신을 잃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²⁶⁾

이에서 전통교육이 지식보다는 먼저 선비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갖도록 함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빈부귀천(貧富貴賤)보다 올바른 선비정신을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관(衣冠)이나 언어, 행동 등의 예절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된다.

25) 『士小節』, 권7, 「婦儀」2, 教育, “後世雖無傳姆之訓, 然女子之婉婉聽從, 灑掃應對, 紡織裁縫, 烹飪調劑, 專憑母教, 其爲父道, 不過時取詩書圖史, 道說箴微而已. 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步, 言笑起居, 衣服飲食, 節慎雍和, 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

26) 『士小節』, 권8, 「童規」3, 教習, “教童子, 必先導以心術之公學業之正, 及其長大, 追遊師友, 必取端雅, 屏絕匪類, 不背經訓, 始迺免爲雜流, 雖貧賤而抱關庸保農醫商匠爲業, 不失爲修飭之士”.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본심을 간직하고 착한 성품을 함양하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의관(衣冠)은 반드시 정제(整齊)하고 걸음걸이는 반드시 신중히 할 것이며, 말은 경솔하고 야비하게 하지 말고 얹고 서는 것은 방자하고 해이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일을 하는 데는 공경(恭敬)으로써 하고 처신하는 데에는 바름으로써 할 것이며, 허위를 조작하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 것이다. 그리고 착한 말을 들으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복종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조금도 기탄 없이 고쳐야 한다.²⁷⁾

이러한 점은 『소학』의 첫머리에서 말하는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는 도리’²⁸⁾와 통하는 것이다. 이에 『소학』은 기초적인 가정교육에서 필수적인 교과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은 유교윤리를 현실에 실천하기 위한 행위규범서(行爲規範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규범서인 『소학』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이 실천 중심의 덕성교육·예절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덕무는 글공부가 과거(科擧)와 같은 세속적인 영리(榮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학문의 목적을 인간교육에 두고 있다.

자제가 어릴 때부터 자질이 아름답고, 그 심지를 살펴볼 때 세속의 과거에 관한 학문을 익히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그의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에 맡겨서, 어진 사우(師友)를 택해서 학업을 성취시키게 한다면, 저 과거(科擧)의 영리(榮利)에 비교할 때 그 경중(輕重)과 대소(大小)가 과연 어떠하겠는가?²⁹⁾

이는 곧 학문의 목적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한 위기지학(爲己之學)³⁰⁾에 있다는 유교의 학문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글을 가르칠 때에도 무조건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실천성을 역설하였다.

27) 『士小節』, 권1, 「士典」1, 性行, “愛親敬長, 存心養性, 勤學問節嗜欲, 衣冠必齊整, 步履必安重, 言語不得輕鄙, 坐立不得放弛, 執事以敬, 行己以正, 毋敢欺情, 毋與人爭, 聞善言則服, 不計幼賤, 有過失則改, 無少憚吝”.

28) 주 9) 참조.

29) 『士小節』, 권8, 「童規」3, 教習, “子弟自幼時, 資質粹美, 察其心志, 不願習流俗科擧之學, 須勿拂其性, 而任其所好, 擇賢師友而托之, 成就其學業, 較彼科擧榮利, 輕重大小何如也”.

30) 『論語』, 「憲問」,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글을 가르치는 데는 많이 가르칠 것만이 아니라, 정숙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자질을 헤아려 능히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자에게는 100자만 가르치되, 항상 정신과 역량이 남아둘게 하면, 싫증을 낼 염려가 없고 자득(自得)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³¹⁾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에는 많은 분량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 금기다. 총민(聰敏)한 자가 조금만 읽어서 잘 외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거니와, 둔한 자에게 많은 분량을 익히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갈 이치가 있겠는가. 글은 분량을 적게 해서 익숙하게 읽어 뜻을 아는 것이 귀중하다.³²⁾

즉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미 익힌 지식을 이해하고 체득(體得)하여 현실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선비와 부녀자,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 몸가짐, 언어, 의복에서부터 가족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교육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서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이,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참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은 어린이가 장차 성인(成人)이 된 뒤에도 가치관의 혼란이나 피리감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社會性)을 기르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부모·형제 등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이것이 사회로 그대로 확대되어 성인이 된 뒤에도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 가정교육의 내용을 『사소절』을 중심으로 두서없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전통 가정교육은 태교(胎敎)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부모는 엄부자모(嚴父慈母)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예절위주의 실천적인 교육을 통한 덕성교육을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소학』과 같은 도덕규범서를 통한 실천 교육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덕성교육의 지향을 위한 반복적인 실천학습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회성을 기르게 할 수가 있었다.

31) 『士小節』 권8, 「童規」3, 敎習, “凡授書, 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其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美”.

32) 『士小節』 권3, 「士典」3, 敎習, “授小兒書, 切忌多行. 聰敏者, 少讀善誦, 不是好品, 使鈍者多行, 猶弱馬負重, 豈有致遠之理. 書貴少行熟讀知義”.

V. 맺는 말

이덕무는 “망아지는 길들이지 않으면 좋은 말이 될 수 없고, 어린 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재목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고서 가르치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같다”³³⁾고 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정교육은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교육으로서, 이는 결국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연결되는 기초교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과 괴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인간교육이라는 교육목적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전통사회보다 약화되었다. 즉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덕성교육이나 사회성교육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교육에만 모든 교육적 책임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이 학벌을 따거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낳게 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있으나, 스승과 제자는 없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교육으로만 흐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는 점차 학교의 붕괴 현상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붕괴와 같은 문제들은 학교교육에만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그 원인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들 교육이 괴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관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교육인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설 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도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소절』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가정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내가 일찍이 남의 부탁을 받아 수 십 명의 아이를 가르쳤으나 결국에는 성취한 자가 적었으니, 그것은 모두가 부형(父兄)의 편협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처음에는 비록 신신

33) 『士小節』, 권8, 「童規」3, 教習, “生馬之駒, 不能調習, 不可以爲良驥. 穉松之苗, 不能培養, 不可以成美材. 故有子而不能教, 猶棄之也”.

당부하며 행여 엄하게 통솔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만일 매라도 때리면 크게 괴이한 일로 여기고 아이도 배반하고 가버렸다. 그러므로 엄한 사우(師友)가 있더라도 어진 부형이 없으면 어질지 못한 자제는 금수(禽獸)처럼 되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그것은 사우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부형의 무식(無識) 때문이다.³⁴⁾

이 말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교육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經書』, 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高麗史』, 서울: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影印本(1972).
 『三國史記』, 서울: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1982).
 『世宗實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1968).
 『小學集註增解』, 서울:震友會 影印本(1983).
 『陽村集』, 서울: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韓國文集叢刊(7).
 『周禮注疏』,臺北:新文豐出版公社 影印本(1977).
 『中宗實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1968).
 김문식(1998), 소학(小學)과 아동교육, 《전통과 현대》, 1998년 여름호, 서울:전통과현대사.
 金恒洙(1990), 「朝鮮 前期의 性理學」, 『韓國史』, 서울:한길사.
 都民宰(1998), 『朝鮮前期 禮學思想 研究』, 서울: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족문화추진회 편(1997), 『國譯 靑莊館全書』(6), 「士小節」, 서울:술.
 徐鳳延(1982), 「傳統的 生活世界와 兒童生活」, 『傳統的 生活樣式的 研究』(中),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柳岸津(1990),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李啓鶴 외(1993), 『韓國人의 傳統家庭教育思想』,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34) 『士小節』, 권3, 「士典」3, 敎習, “子嘗受人之托, 敎數十童子, 畢竟成就者少, 皆緣其父兄之溺愛. 始雖申申屬托, 而愈恐其督率, 若加撻撻, 則大以爲異事, 而童子始叛去矣. 故雖有嚴師友, 而若無賢父兄, 則不肖子弟, 爲禽爲獸, 無所不至. 此非社友之過也, 迺父兄之無識也”.

李德懋·崔瑄煥 편, 『士小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정재걸(1998), 「학교교육과 전통문화교육」, 《전통과 현대》, 1998년 여름호, 서울 : 전통과현대사.

최봉영(1984), 「朝鮮時代 선비들의 類型과 行爲類型」, 《정신문화연구》 21,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봉영(1997), 『朝鮮時代 儒敎文化』, 서울 : 사계절.

최봉영(1998), 「한국교육의 본질과 오도」, 《전통과 현대》, 1998년 여름호, 서울 : 전통과현대사.